아마도 야곱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 아마도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인물, 그래서 결국에 자신도 라반의 속임수에 제대로 당하는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야곱하면 속임수, 속임수 하면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란 인물을 이렇게 오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인식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려는 시각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바라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영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오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이지만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에서가 생각보다 쉽게 동의하며 팥죽이나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두 쌍둥이 형제가 커갑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양떼를 치고 소를 모는 목자가 되지 않고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나중에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과

만나기 전에 그곳에서 만난 목자들과의 대화가 야곱이 아주 능숙한 목자였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와 라헬의 양떼를 먹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유능한 목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내어, 라반의 재산을 늘려주고 자신도 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양과 소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의미는 말이 없이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 1:1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내성적인 성격의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히11:9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에 있는 것 같은 임시적인 삶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던 이유는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것을 당부합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그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설명해주신 말씀입니다. (요1:51)

그리고 이 벧엘에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도 그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벧엘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들의 구원 여정에도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분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 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벧엘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당부대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헬을 위해 2번의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속이고 육신적으로는 라반의 양들까지 성실하게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었지만 야곱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시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이루는 아들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라반의 위협도 있었고 많은 가축 떼를 몰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현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하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 씨름을 하여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었어도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야곱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을 잘 곱씹어 보시면 야곱은 속임수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야곱이 부각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인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만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 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